전북금연지원센터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금·연·성·공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용동 344-2) 원광대학교병원 외래1관 1층
TEL | 063) 859-2400 ~ 2410 FAX | 063) 859-2414

전주매일

2019년 5월 30일 목요일 (음 4월 26일) 제2300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29일 부안군을 찾아 2023년 세계 잼버리 준비 상황을 살펴보고 을지태극연습을 참관했다.

새만금 세계잼버리 연계 체험시설 필요 '공감대'

전북 대도약 향한 시·군 방문 - 부안

송하진 도지사, 줄포면 스카우트 지도자 교육장 방문
잼버리 준비 현장 의견 청취
잼버리 성공개최 협업 강조
을지태극연습 훈련도 참관

전북 대도약을 위한 시군 방문에 나선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29일 아홉 번째 방문지로 부안군을 찾아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준비 상황을 살펴보고 을지태극연습을 참관했다.

이날 송하진 도지사는 2023세계잼버리대회 준비를 위한 스카우트 지도자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줄포생태공원과 2019 을지태극 연습기간 중 군청 피폭상황을 가상한 실제 테러 대비 시범 훈련장인 부안군청을 방문했다.

먼저 스카우트 지도자 교육장소로 자리매김한 줄포만갯벌생태공원을 방문해 오세웅 스카우트 부안지구연합회장 등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간담회를 열어 2023 세계잼버리 준비에 대한 다양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줄포만갯벌생태공원은 생태학습장, 캠핑장, 수상레저장 등으로 조성되어 있어 스카우트 교육을 위한 최적의 장소로 매년 100명이상의 스카우트 지도자 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며, 각종 미니잼버리, 지역대 훈련 장소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023 세계잼버리의 성공개최를 위한 다양한 의견과 기관간 협업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참석자인 이유선 부안지구연합회 치프커미셔너는 "부안군의 문화, 관광 등 우수한 자원이 있는 만큼 다양하고 지속가능한 체험처 발굴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잼버리와 연계한 부안군 체험장소 발굴 및 육성을 건의했다.

이에 송하진 도지사는 "세계잼버리 성공개최와 부안을 방문하는 관광객, 청소년을 위해 체험시설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며 "지역관광자원과 잼버리를 연계한 체험시설 발굴과 국비 확보를 위해 도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순분자에 의한 테러 발생시 신속·정확하게 대응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 및 비상대비태세 역량 향상을 목적으로 실시한 대 테러대비 실제훈련을 참관하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훈련은 부안군과 군경 및 유관기관 등 8개 기관 180여명이 함께했으며 불순세력들이 사회적 불안의 혼란을 틈타 관공서에 난입하는 테러 상황을 가정해 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을 참관한 송하진 도지사는 "언제라도 우리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협에 대비해 평소 통합적 재난관리 체계 구축 및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도는 열 번째 시군 방문지로 6월 21일 무주군을 계획하고 있다. /김진성 기자

매일 INDEX
4면 - "윤중천 접대 검찰간부 더 있다"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내달 7~10일 개최

찬란한 국악의 역사 펼친다

국립무형유산원 등서 개최

국악분야 최고의 권위와 역사를 자랑하는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가 국악의 본고장인 대한민국 문화특별시 전주에서 열린다.

황권주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과 송재영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조직위원장은 29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악분야 최고 등용문인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가 오는 6월 7일부터 10일까지 국립무형유산원과 경기전광장, 전주한옥마을 일원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올해 전국대회의 슬로건을 '장원, 그 찬란한 역사의 시작'으로 정하고, △전주대사습놀이의 과거를 조명하고 △최고의 국악경연대회로 명성을 떨치는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며 △대한민국 대표 국악등용문이자 전 세계로 펼쳐져 나갈 미래를 만들겠다는 각오다.

전주시와 전주대사습놀이 조직위원회는 29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전국대회의 슬로건을 '장원, 그 찬란한 역사의 시작'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판소리명창부 자격 강화
무용·민요 신인부 신설
올해로 5년째로 이어진
대사습 기부금이 더해져
장원 5000만원 상금 수여
심사회피 강화 청중평가도

올해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는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판소리명창과 판소리일반, 기악, 가야금병창, 민요, 무용, 궁도, 시조, 농악, 무용신인, 민요신인, 판소리신인, 고법신인 등 13개 분야의 예선을 치른 뒤, 10일 국립무형유산원 대공연장에서 진행되는 본선을 통해 국내 최고 실력의 국악인을 뽑게 된다. 또, 국악 꿈나무 발굴을 위한 학생전국대회도 판소리, 농악, 관악, 현악, 무용, 민요, 가야금병창, 시조, 판소리초등부 등 9개 분야 예선과 본선이 펼쳐질 예정이다.

특히 조직위는 국내 최고 실력 국악인을 발굴하고 대회 위상을 높이기 위해 판소리명창부의 참가자격을 판소리 다섯바탕 중 한바탕 이상 완창 가능한자에서 한바탕 이상 완창한 자로 강화했다.

올해로 5년 째 이어진 대사습 기부천사의 5740만원의 기부금이 더해져 판소리명창부 장원에게는 5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는 등 전국 최고의 국악대회로서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됐다.

또한 올해 전국대회부터 △무용신인부 △민요신인부 △고법신인부 등을 신설해 역량 있고 기량이 뛰어난 명인·명창을 발굴하고, 국악 동호인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신인부 경연을 공연 무대에 선보임으로써 대회의 대중화와 축제화를 꾀해 전국 최고의 국악한마당 행사로 만들 계획이다.

시와 조직위는 대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위원 추천위원회와 심사위원 선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함으로써 심사위원 선정단계에서부터 혹여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원천 차단했다. 또, 경연별로 예선과 본선의 심사위원을 따로 둠으로써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중 안전장치를 마련했으며, 심사위원 선정 시 경연 출연자의 직접스승과 8촌 이내의 친인척을 원천 배제하도록 심사회피제를 강화하고 청중평가단도 운영된다.

이와 함께, 올해 전국대회에서는 경연대회 외에도 4개의 섹션으로 이루어진 공연 프로그램들이 다채롭게 펼쳐져 대회기간 동안 전주의 낮과 밤을 국악의 향기로 물들이게 된다.

개막초청공연 '찬란한 역사의 뿌리'의 경우, 총 10개 프로그램에 전통을 지키켜온 국악계 명인·명창과 전주대사습놀이 역대 장원 등 42명이 출연해 전통국악의 역사적인 공연을 선사할 예정이다.

여기에 △기획초청공연Ⅰ '찬란한 역사의 오늘'(6개 프로그램, 41명 출연) △기획초청공연Ⅱ '찬란한 역사의 미래'(2개 프로그램, 68명 출연) △특별공연(4개 프로그램, 24명 출연) △부대행사(3개 프로그램, 50명 참여) 등에는 전통을 전승하고 있는 각 장르별 국악을 아끼는 젊은 국악인부터 열정 가득한 실버공연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해 한바탕 소리의 판을 펼치게 된다.

올해 대사습놀이에서는 또 △전주를 대표하는 국악그룹 '벼리국악단' △우리음악을 기반으로 한 '어쿠스틱 앙상블 재비' △전통 창작 음악그룹 '거꾸로 프로젝트' △한국창작 무용단 '두댄스' △젊은 남성 타악그룹 '진명' △종합예술창작극단 '깍두기' 등 전통문화예술의 다양한 형태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효철 기자